

<합동외부평가>

세계보건기구, 대한민국 식품안전관리 체계 '세계 최고 수준·만점' 인정

- WHO 합동외부평가 결과, '식품안전' 분야 최고 점수 획득
- 생산부터 소비까지 쉼 식품 공급망에서 위기대응 역량이 세계 최고임을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를 실시한 결과, '식품안전' 분야는 최고 점수인 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 회원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가별 식품안전관리 계획에 반영하도록 권고

WHO 합동외부평가단*은 지난해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해 '식품안전' 등 19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지속가능한 위기대응 역량을 인정하는 최종보고서를 WHO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 단장 클리망 라자루스(Clement Lazarus),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긴급대응국장 지나 사만(Gina Samaan) 등 총 14명

** 감염병 위기대응, 항생제 내성, 화학·방사능 사고 분야 등으로 식약처 주관은 '식품안전' 1개 항목

식품 안전 분야 평가는 '17년 평가(1차)에 이어 연속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식품 공급망에 대한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았다는 의의가 있다.

식품안전 분야는 2개 지표*(22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24년 이후 평가받은 22개국 중 2개 지표 모두 5점을 받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이다.

* ①식품매개 질병 및 식품오염감시 ②식품안전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및 관리

평가단은 이번 평가에서 ▲식약처를 중심으로 한 관련부처·지자체 간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협력 체계 ▲식중독 보고관리시스템, 통합식품안전 정보망 등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체계 ▲지속적인 교육·훈련 ▲식품안전나라 등 위해 소통 체계 ▲푸드 QR을 통한 수어영상 표출 등 취약계층 배려 정책 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평가단은 “대한민국 식품안전관리 체계는 촘촘한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디지털 인프라까지 더해져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 각국의 식품안전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평가단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여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글로벌 위상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평가결과의 세부사항은 WHO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ww.who.int/emergencies/operations/international-health-regulations-monitoring-evaluation-framework/joint-external-evaluations

- <붙임> 1. WHO ‘식품안전’ 평가 항목
2. WHO 합동외부평가 개요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3-719-2030)



- **목표:**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모든 분야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식품 매개 질병 및 식품 오염 위험 또는 사건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을 위해 기능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측정 기준:** ①식품 매개 질병 또는 오염 사건의 원인을 발견하고 지정하기 위한 지표 기반 감시(IBS) 또는 사건 기반 감시(EBS)와 지원 검사실 분석의 존재 및 사례, 발생 또는 사건과 관련된 식품의 위험 조사, ②국가 식품 안전 비상 계획의 존재, ③지정된 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INFOSAN) 비상 연락처 및 동물성 식품 안전에 대한 조정 메커니즘을 갖춘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의 연락 지점 존재
- **기대효과:**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다른 분야와 협력하여 잠재적인 식품 관련 사건의 시기적절한 발견과 효과적인 대응

수준	P6.1. 식품 매개 질병 및 식품 오염 감시
1 (역량 없음)	식품 매개 질병 또는 식품 오염(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감시 시스템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임
2 (제한된 역량)	국가는 식품 매개 사건(발생 또는 오염)을 모니터링하고 발견하기 위해 IBS 또는 EBS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하고 있음
3 (개발된 역량)	IBS 또는 EBS 시스템에는 식품 매개 질병의 원인 또는 오염 사건의 출처를 파악하고 사례, 발생 또는 사건과 관련된 식품의 위험 요소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실 분석이 포함됨
4 (입증된 역량)	국가는 국가 및 중간 수준에서 급성 식품 매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위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
5 (지속 가능한 역량)	국가는 위험 및 완화 가능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고 체계적인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전체 식품 사슬의 정보를 통합하는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수준	P6.2. 식품 안전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및 관리
1 (역량 없음)	식품 안전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및 관리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임
2 (제한된 역량)	국가는 적절한 대응을 확대하기 위한 계기로 작용하도록 정의된 식품 안전 비상 상황을 포함하는 국가 식품 안전 비상 계획을 가지고 있음
3 (개발된 역량)	국가는 국가 식품 안전 비상 계획과 지정된 INFOSAN 비상 연락 창구를 두고 있으며, 식품 안전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이행을 위한 기능적 준비가 갖춰진 모든 관련 분야를 포함하는 중앙 조정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음
4 (입증된 역량)	파트너, 이해관계자, 일반 대중 및 국제기구와 소통하기 위한 전략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5 (지속 가능한 역량)	위험 분석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식품 안전 비상 대응 계획은 비상 상황 발생 후 테스트 및/또는 검토됨

□ WHO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개요

- **(개념)**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국제평가로, 각 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16년 도입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평가를 통해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권고
- **(특징)** 감염병위기대응, 항생제내성,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관련 쏠영역의 역량을 평가하며,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참여
- **(평가방법)** 방문평가 및 브리핑 진행
 -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검증, 발표 및 질의응답, 토론 등 실시
- **(평가영역)** 관련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포괄적 평가체제로, 예방·탐지·대응·기타 등 4개 분야의 19개 평가영역으로 구성

* 질병청, 과기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해수부, 식약처, 원안위

구분	평가영역(19개)	영역 주관부처
 Prevent	① 법적 근거	질병청
	② 재정	질병청
	③ IHR 조정, 국가 IHR 연락관, 역할, 지지	질병청
	④ 항생제 내성	질병청
	⑤ 인수공통감염병	질병청
	⑥ 식품안전	식약처
	⑦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질병청
	⑧ 예방접종	질병청
 Detect	① 실험실 진단체계	질병청
	② 감시	질병청
	③ 인력자원	질병청
 Respond	① 공중보건위기 관리	질병청
	② 공중보건·보안당국 협력	질병청
	③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④ 감염예방관리	질병청
	⑤ 위기소통과 지역사회 참여	질병청
 Others	① 입국지점 및 국경보건	질병청
	② 화학물질 사고	환경부
	③ 방사능 사고	원안위